

## 1. (가) ~ (라)를 맥락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우리 주변에는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가) 더구나 약물은 내성이 있어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기 마련이므로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된다.

(나)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을 합친 말로서 오용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일, 남용은 함부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일을 가리킨다.

(다) 그러므로 약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설명서를 확인하여 목적에 맞게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

(라) 약물을 오남용하면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① (나) - (다) - (라) - (가)
- ② (나) - (라) - (가) - (다)
- ③ (라) - (가) - (나) - (다)
- ④ (라) - (다) - (나) - (가)

### 1. 정답 2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글의 맨 앞에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는 내용이 이미 주어져 있고, 이 내용 뒤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을 골라야 하는데, 선지를 참고하면 (나)와 (라) 중 맨 앞에 놓이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오남용의 개념을 설명했고, (라)는 오남용의 결과(폐해)를 설명했는데, 결과보다는 개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나)가 먼저 와야 한다. 따라서 선지 ①, ② 중에서 답을 고르면 된다. 선지 ①은 (나) 뒤에 (다)가 오고, 선지 ②는 (나) 뒤에 (라)가 오는데, (다)는 접속어 '그러므로'로 시작하므로 결론 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하고 있다. (라)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남용의 결과(폐해)에 대해 언급하였다. 둘 중 먼저 오남용의 폐해를 언급한 뒤에 이를 막을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라)가 먼저 나오고, 글의 맨 마지막에 해결안인 (다)가 놓이는 것이 가장 좋다.

## 2.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 사회는 타고난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계급사회였지만, 현대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해.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

을: 현대사회는 고대나 중세만큼은 아니지만 귀족지위가 성취지위를 결정하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빈부 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잖아. '금수저', '흙수저'라는 유행어에서 볼 수 있듯 빈부 격차가 대물림되면서 개인의 계급이 결정되고 있어.

병: 현대사회가 빈부 격차로 인해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계급사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계급

사회라고 말하려면 계급 체계 자체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각종 문화나 생활 방식 전체를 특징한 계급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따라서 현대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는 어려워.

갑: 현대사회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맞아. 하지만 인간 생활의 근간은 결국 경제 활동이고, 경제적 계급 논리로 현대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어. 또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급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

- ① 갑은 을의 주장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박한다.
- ②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 ③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대립하지 않지만 을의 주장과는 대립한다.

### 2. 정답 2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글의 맨 앞에 제시된 '갑'의 의견을 따르면, 현대사회가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과연 그런지 의문이라고 하였으므로, 현대사회가 계급사회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을' 역시 빈부 격차가 대물림되면서 개인의 계급이 결정되고 있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현대사회에 계급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병'은 오늘날의 각종 문화나 생활 방식은 특정 계급의 논리로만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현대사회를 계급사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현대사회가 계급 사회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병'의 이런 입장에 대하여 '갑'은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그래도 경제적 계급 논리로 보면 현대사회가 계급 사회인 것은 맞다고 주장하였다.

정리하자면, 갑과 을은 현대사회를 계급사회로, 병은 계급 사회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갑과 을은 동일한 입장을, 병은 이들과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 ②의 을과 갑의 주장이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서술이다.

[오답 풀이]

- ① 갑과 을은 동일한 입장이므로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박한다는 설명은 적절치 않다.
- ③ 갑과 병은 상반되는 입장이므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 ④ 병의 주장은 갑과 을 모두의 주장과 대립한다.

### 3.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로 쓰인 것은?

- ① 그 친구는 허구헌 날 놀러만 다닌다.
- ② 닭을 통째로 구우니까 더 먹음직스럽다.
- ③ 발을 잘못 디더서 하마트면 넘어질 뻔했다.
- ④ 언니가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코트를 입었다.

### 3. 정답 2번

출제 범위: 어문 규범 - 표준어 규정

[정답 해설]

㉔ ‘통째’는 나누지 아니한 덩어리 전부를 의미하는 단어로, 표준어이다. 이때 ‘-째’는 접사이므로 어근인 ‘통’에 붙여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풀이]

㉑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라는 의미의 단어는 ‘허구하다’이므로, ‘허구한’으로 써야 한다.

㉓ 조금만 잘못하였더라면의 뜻으로 쓰이는 말은 ‘하마터면’이다.

㉕ 기다란 물건의 한 군데가 패어 들어가 오목함을 의미하는 말은 ‘잘록하다’이므로 ‘잘록하게’로 써야 한다.

4. 다음은 다의어 ‘알다’의 뜻풀이 중 일부이다. ㉑ ~ ㉕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
- ㉒ 다른 사람과 사귀어 있거나 인연이 있다.
- ㉓ 어떤 일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다.
- ㉔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다.

- ① ㉑: 그 외교관은 무려 7개 국어를 할 줄 안다.
- ② ㉒: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지 오래이다.
- ③ ㉓: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 ④ ㉔: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서 잘 알았다.

4. 정답 4번

출제 범위: 단어의 의미 관계 - 다의어

[정답 해설]

④ ㉔의 ‘알았다’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믿거나 생각한다는 의미의 ‘알다’이다.

5.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우리 시에서도 다음 달부터 시내 도심부에서의 제한 속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 교수: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바뀌는 제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강 교수: 네,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에서의 제한 속도를 기존의 70 km/h에서 60 km/h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진행자: 시의회에서 이 정책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 하셨나요?

강 교수: 차량 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고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

어요?

강 교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 작년에 7개 구간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험 적용해 보니, 차가 막히는 시간은 2분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상 이상의 인명 사고는 26.2% 감소했습니다. 또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도 각각 28%, 21%가량 오히려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행자: 아, 그러니까 속도를 10 km/h 낮출 때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면 인명 사고의 예방과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시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강 교수: 네, 맞습니다.

진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교통체증 유발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의 제한 속도 조정 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군요. 맞습니까?

강 교수: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① 상대방이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 설명한다.
- ② 상대방의 견해를 요약하며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를 확인한다.
- ③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견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 ④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예시한다.

5. 정답 4번

출제 범위: 화법 - 말하기 방식

[정답 해설]

진행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강 교수가 ○○시가 작년에 7개 구간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험 적용했다고 통계 수치를 제시하자, 진행자는 “아, 그러니까 속도를 10 km/h 낮출 때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면 ~이라는 말씀이시군요.”라고 하여, 상대방이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진행자의 마지막 말을 보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군요. 맞습니까?”라고 하여, 상대방의 견해를 요약하며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③ 진행자가 강 교수의 주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한 뒤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라고 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견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6. 다음을 참고할 때, 단어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어떤 구성을 두 요소로만 쪼개었을 때, 그 두 요소를 직접구성요소라 한다. 직접구성요소가 어근과 어근인 단어는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인 단어는 파생어라 한다.

- ① 지우개 - 새파랗다                      ② 조각배 - 드높이다  
③ 짓밟다 - 저녁노을                      ④ 풋사과 - 돌아가다

6. 정답 1번

출제 범위: 현대 문법 - 단어의 형성

[정답 해설]

① 지우(어근)/개(접사) - 새(어근)/파랗다(접사): 두 단어 모두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 ② 조각(어근)/배(어근): 합성어 - 드(접사)/높이다(어근): 파생어  
③ 짓(접사)/밟다(어근): 파생어 - 저녁(어근)/노을(어근): 합성어  
④ 풋(접사)/사과(어근): 파생어 - 돌아(어근)/가다(어근): 합성어

7. 다음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 ①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공간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②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③ 화자를 표면에 나타내어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다.  
④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7. 정답 3번

출제 범위: 현대 문학 - 시

[정답 해설]

박용래의 <울타리 밖>은 안과 밖을 구분 짓는 울타리를 넘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③의 내용처럼 화자를 표면에 드러낸다면 시에 '나'가 등장한다는 의미인데, 화자 '나'는 직접 등장하지 않으므로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고, 고향에 대한 상실감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고향의 소년과 소녀, 아지랑이, 제비, 물, 울타리의 등 향토적 소재가 마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② 1연의 1, 2행과 2연의 1, 2행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④ '천연히'라는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여, 단어의 의미 그대로, 꾸밈없이 자연스러운 마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8.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화 개념에 대해 흔히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 첫째, 인간의 행동은 철저히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진화 이론이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이러한 적응 성향을 발달시키고 활성화되게 하는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둘째, 현재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 체계는 오랜 진화 과정에 의한 최적의 적응 방식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가령 구석기시대의 적응 방식을 오늘날 인간이 지니고 있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원시시대에 사용하던 인지적 전략 등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원시시대의 적응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①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으로, 마음은 유전의 영향으로 결정된다.  
②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복잡한 정도가 클수록 인지적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③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면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④ 조상의 유전적 성향보다 조상이 살았던 과거 환경이 인간의 진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8. 정답 3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③ 첫 번째 단락의 맨 끝에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라는 서술이 있으므로, 결국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의 유전자는 동일하더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서로 다르다면, 동일한 유전적 요인에 서로 다른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단락의 맨 끝에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라고 하였으므로 행동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개입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고, 마음이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은 없다.

② 두 번째 단락의 맨 앞에서 상황(환경)의 영향으로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이 최적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오해라고 하였으므로, 복잡할수록 인지적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④ 첫 번째 단락의 맨 끝에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인간의 진화는 유전과 환경 모두의 영향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9. (가) ~ (다)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현실을 (가)한 그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 그는 (나)이 잦아 친구들 사이에서 신의를 잃었다.  
○ 이 소설은 당대의 구조적 (다)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가)	(나)	(다)
① 度外視	食言	矛盾
② 度外視	添言	腹案
③ 白眼視	食言	矛盾
④ 白眼視	添言	腹案

9. 정답 1번

출제 범위: 한자어 - 한자 표기

[정답 해설]

- ① (가) 현실을 도외시하다: 度外視 법도(도) 바깥(외) 볼(시)  
-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함.  
(나) 그는 식언이 잦다: 食言 먹을(식) 말씀(언)  
-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아니함.  
(다) 당대의 구조적 모순: 矛盾 창(모) 방패(순)  
-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

[오답 풀이]

- 白眼視 흰(백) 눈(안) 볼(시):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겨봄.
- 添言 더할(첨) 말씀(언): 덧붙여 말함.
- 腹案 배(복) 생각(안):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만 하는 생각.

1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 관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오프라인’이나 ‘대면’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실체감이 있는 아날로그적 접촉을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용어로 명료하게 분리되지 않는 활동들도 많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문자를 주고받음으로써 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한편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에서보다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때 아날로그 상호작용 수단과 디지털 상호작용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의 경험은 비대면 혹은 대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같은 이분법적 범주로 온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상호작용 양식들이 서로 겹치거나 교차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분법적인 범주는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

- ①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상호작용 양식이 교차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②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는 사람들 간에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③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오프라인 대면 활동이 온전히 분리되어 있

는 것은 아니다.

- ④ 오늘날에는 대면 상호작용 중에도 디지털 수단에 의한 상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10. 정답 2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통해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에서보다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서술하였으므로 ②는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 풀이]

- ①, ③ 두 번째 단락의 중간에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의 경험은 비대면 혹은 대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같은 이분법적 범주로 온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서술하였다. 이것을 통해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상호작용 양식이 교차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오프라인 대면 활동이 온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예를 들어 ~ 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서술을 보면, 오늘날에는 대면 상호작용 중에도 디지털 수단에 의한 상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사는 장화와 홍련이 꿈에 나타나 자신들의 원통한 사정에 대해 고한 말을 듣고 배 좌수를 관아로 불러들였다. 부사가 물었다.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소?” 배 좌수는 머뭇거리며 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후처가 엿보고 있다가 남편이 사실을 누설할까 싶어 곧장 들어와 답했다. “제 친정은 이곳의 양반 가문입니다. 장녀 장화는 음행을 저질러 낙태한 뒤 부끄러움을 못 이기고 밤을 틈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차녀 홍련은 언니의 일이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낙태한 증거물을 바치니 부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는 그것을 보고 미심쩍어하며 모두 물러가게 했다.

이날 밤 운무가 뜰에 가득한데 장화와 홍련이 다시 나타났다. “계모가 바친 것은 실제로 제가 낙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모가 죽은 쥐의 가죽을 벗겨 제 이불 안에 몰래 넣어 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가져다 배를 갈라 보시면 분명 허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에 부사가 그 말대로 했더니 과연 쥐가 분명했다.

- 「장화홍련전」에서 -

- ① 부사는 배 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장화와 홍련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② 배 좌수의 후처는 음행을 저지른 홍련이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부사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③ 장화는 배 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책을 부사에게 알려 주었다.  
④ 배 좌수는 장화와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물어보는 부사에게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11. 정답 3번

출제 범위: 고전 문학 - 소설

[정답 해설]

③ 두 번째 단락에서 장화와 홍련이 부사에게 다시 나타나서 계모가 바친 증거물의 배를 갈라 보면 허실을 알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단락에서 부사가 꿈을 통해 장화와 홍련의 원통한 사정을 듣고 배 좌수를 관아로 불러들였다가 그의 후처(계모)가 이야기하는 것까지 듣고 미심쩍어하며 모두 물러가게 하였다고 서술하였으므로 장화와 홍련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② 배 좌수의 후처는 장화가 음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다.

④ 부사는 배 좌수에게 장화와 홍련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를 물었다.

12.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가) ~ (라)에서 고르면?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제 몸을 희생해 가며 나라 지키기에 나섰으며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이순신의 일기에는 뚜렷하게 기록된 것이다.

『난중일기』의 진면목은 7년 동안 전란을 치렀던 이순신의 인간적 고뇌가 가감 없이 드러나 있다는 데 있다. (가) 왜군이라는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임금과 조정의 끊임없는 경계와 의심이라는 내부의 적과도 싸우며, 영웅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느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이 잘 나타나 있다. (나) 전란 중 겪은 원군과의 갈등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그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보통의 인간이었음을 보여 준다. (다) 그뿐만 아니라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과 함께 휘하 장수에서부터 병졸들과 하인,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라) 『난중일기』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2. 정답 4번

출제 범위: 비문학 - 이어질 내용 찾기

[정답 해설]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면, 문장이 끝이 ‘-된 것이다’로 마무리된다. 문장이 ‘-ㄴ 것이다’로 마무리되는 것은 주로 앞에 이미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나서 그것에 대해 부연, 상술을 할 때이다. 따라서 먼저 이순신의 일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언급이 나와 있어야 제시된 내용이 이어서 들어갈 수 있다.

(가), (나), (다)의 앞에는 모두 『난중일기』에 드러난 이순신의 인간적 고뇌나 심리 등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의 이름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라)의 앞에는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과 함께 휘하 장수에서부터 병졸들과 하인,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라)의 위치가 제시된 내용이 들어갈 위치가 된다.

13.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득, 제비와 같이 경쾌하게 전보 배달의 자전거가 지나간다. 그의 허리에 찬 조그만 가방 속에 어떠한 인생이 압축되어 있을 것이고. 불안과, 초조와, 기대와…… 그 조그만 종이 위의, 그 짧은 문면(文面)은 그렇게도 용이하게, 또 확실하게, 사람의 감정을 지배한다. 사람은 제게 온 전보를 받아 들 때 그 손이 가만히 떨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구보는 갑자기 자기에게 온 한 장의 전보를 그 봉함(封緘)을 떼지 않은 채 손에 들고 감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전보가 못 되면, 보통우편물이라도 좋았다. 이제 한 장의 엽서에라도, 구보는 거의 감격을 가질 수 있을 게다.

흥, 하고 구보는 코웃음쳐 보았다. 그 사상은 역시 성욕의, 어느 형태로서의, 한 발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물론 결코 부자연하지 않은 생리적 현상을 무턱대고 업신여길 의사는 구보에게 없었다. 사실 서울에 있지 않은 모든 벗을 구보는 잊은 지 오래였고 또 그 벗들도 이미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여 오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지금, 무엇들을 하고 있을꼬. 한 해에 단 한 번 연하장을 보내 줄 따름의 벗에까지, 문득 구보는 그리움을 가지려 한다. 이제 수천 매의 엽서를 사서, 그 다방 구석진 탁자 위에서…… 어느 틈엔가 구보는 가장 열정을 가져, 벗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다. 한 장, 또 한 장, 구보는 재떨이 위에 생담배가 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가 기억하고 있는 온갖 벗의 이름과 또 주소를 엽서 위에 흘려 썼다…… 구보는 거의 만족한 웃음조차 입가에 띠며, 이것은 한 개 단편소설의 결말로는 결코 비속하지 않다, 생각하였다. 어떠한 단편소설의-물론, 구보는, 아직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 -

- ① 벗들과의 추억을 시간순으로 회상하고 있다.  
② 주인공인 서술자가 주변 거리를 재현하고 있다.  
③ 연상 작용에 의해 인물의 생각이 연속되고 있다.  
④ 전보가 이동된 경로를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13. 정답 3번

출제 범위: 현대 문학 - 소설

[정답 해설]

③ 제시된 글은 주인공 구보가 ‘전보 배달의 자전거’를 보게 되면서, 배달부의 가방 속에 든 전보에 대해 생각하다가 연상 작용에 의해 자신도 전보를 받고 싶다, 엽서라도 받으면 감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 소식을 끊은 친구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그리움을 가지려는 생각, 그런 마음을 담아 열심히 엽서를 쓰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내용이다.

14.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하루 종일 거리를徘徊(徘徊)하였다. → 돌아다녔다  
② 이 산의 광물 자원은 무진장(無盡藏)하다. → 여러 가지가 있다  
③ 그분의 주장은 경청(傾聽)할 가치가 있다. → 귀를 기울여 들을  
④ 공지문에서는 회의의 사유를 명기(明記)하지 않았다. → 밝혀 적지

14. 정답 2번

출제 범위: 한자어 - 의미

[정답 해설]

② ‘無盡藏 없음(무) 다함(진) 감출(장)’은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이므로 종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뜻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徘徊 노닐(배) 노닐(회)
- ③ 傾聽 기울(경) 들을(청)
- ④ 明記 밝을(명) 기록할(기)

15.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 님을 그리수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둘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루시리이다  
넥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물헛 마리신더  
솔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천상의 존재를 통해 화자의 결백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큰 숫자를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15. 정답 4번

출제 범위: 고전 문학 - 운문

[정답 해설]

<정과정>은 고려가요로, 지은이가 부산으로 유배를 갔을 때 자신의 결박을 호소하면서 임금에 대한 변함 없는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다.

④ 큰 숫자인 ‘천만’이 활용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자신의 결박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는 표현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자연물인 ‘접동새’를 통해 임이 그리워서 울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잔월효성(천지신명)’을 통해 자신이 결백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 ③ 6행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10행에서 임이 자신을 다시 불러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현대어 해석]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울었더니  
산에 사는 접동새가 나와 비슷합니다.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것을  
잔월효성(천지신명)이 알 것입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있고 싶구나.  
모함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참소하는 말입니다.  
슬프구나.  
님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 님이시여. 돌이켜 들으시고 다시 사랑해 주소서

16.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의 몸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은 구애 행위나 짝짓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데, 번식기에 나타나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변화 양상은 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짝짓기에 성공하여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하여 달라진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암컷의 마음을 얻는 데 필요한 영역을 차지하려고 다른 수컷과 싸워야 한다. 이 시기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높아진다. 그러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컷은 곧바로 새끼를 돌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 수치는 떨어진다. 새끼가 커서 동지를 떠나게 되면 수컷은 더 이상 영역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번식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좀 더 떨어지고, 번식기가 끝나면 테스토스테론은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번식기가 되면 올라갔다가 암컷이 수정한 이후부터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 수컷은 자신의 동지를 지키면서 암컷과 새끼를 돌보는 대신 다른 암컷과의 짝짓기를 위해 자신의 동지를 떠나 버린다.

- ① 노래참새 수컷은 번식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에 높게 나타난다.
- ② 번식기 동안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이루어진 후에 낮게 나타난다.
- ③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은 암컷이 수정한 이후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 ④ 노래참새 수컷과 검정깃찌르레기 수컷 모두 번식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번식기가 아닌 시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높다.

16. 정답 1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① 두 번째 단락에서 노래참새 수컷은 번식기가 되면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계속 높아지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치가 떨어지고, 새끼가 커서 동지를 떠나게 되면 번식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좀 더 떨어지며, 번식기가 끝나면 테스토스테론은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번식기 동안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새끼를 양육할 때가 양육이 끝난 후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해야 맞다.

[오답 풀이]

② 두 번째 단락에서 노래참새 수컷은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계속 높아지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치가 떨어지진다고 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③ 마지막 단락에서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은 번식기가 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갔다가 암컷이 수정한 이후부터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④ 첫 번째 단락에서 “새의 몸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은 ~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라고 서술하였으므로, 노래참새 수컷과 검정깃찌르레기 수컷 모두 번식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번식기가 아닌 시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높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17.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주장한 다중지능이론은 기존 지능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기존 지능이론이 언어지능이나 논리수학지능 등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 신체와 정서, 대인 관계의 능력까지 포괄한 총체적 지능 개념을 창안해 냈다. 다중지능이론은 뇌과학 연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는데,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좌뇌는 분석적, 논리적 능력을 담당하고, 우뇌는 창조적, 감성적 능력을 담당한다. 다중지능이론에서는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지능 검사에 대해 반쪽짜리 검사라고 혹평한다.

그런데 다중지능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한다. 우선, 다중지능이론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지능의 종류들이 기존 지능이론에서 주목했던 지능의 종류들과 상호 독립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에 따르면, 전자는 후자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서로 독립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다중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지능이라는 말이 측정 가능한 인지 능력을 전제하는 것인데, 다중지능이론이 설정한 새로운 종류의 지능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주장한다.

- ① 논리수학지능은 다중지능이론의 지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대인 관계의 능력과 관련된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 ③ 다중지능이론에서는 인간의 우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보다 좌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에 더 많이 주목한다.
- ④ 다중지능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인간의 모든 지능 영역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이유에서 ‘다중’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7. 정답 2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독해

[정답 해설]

② 두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부분에 다중지능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다중지능이론이 설정한 새로운 종류의 지능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주장한다는 서술이 있다. 따라서 측정 도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단락의 앞부분에서 A가 언어지능이나 논리수학지능 등 인지 능력에만 치우친 기존 지능이론을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 신체와 정서, 대인 관계의 능력까지 포괄한 총체적 지능 개념인 다중지능이론을 창안해 냈다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다중지능이론에는 기존의 인지 능력과 신체와 정서, 대인 관계의 능력이 모두 포함되며, 논리수학지능 역시 포함된다.

③ 첫 번째 단락의 뒷부분에, 다중지능이론이 인간의 좌뇌는 분석적, 논리적 능력을 담당하고, 우뇌는 창조적, 감성적 능력을 담당한다는 뇌과학 연구에 영향을 받았다고 서술하였다. 또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지능 검사에 대해 반쪽짜리 검사라고 혹평한다고 서술하였으므로, 결국 다중지능이론은 좌뇌와 우뇌를 모두 중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좌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에 더 많이 주목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④ 두 번째 단락의 중간 부분에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서로 독립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서술이 있다. 이것을 통해 모든 지능 영역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다중’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다음 글을 퇴고할 때, ㉠ ~ ㉣ 중 어법상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주지하듯이 ㉠ 기후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유럽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발생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이러한 기상 재해 앞에서 기후학자로서 자괴감이 든다. 무엇이 문제인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구의 위기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 크게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하여 ㉠국가 정책 수립과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작게는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해야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일 수는 있겠으나, ㉡지구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ㅁ

18. 정답 3번

출제 범위: 비문학 - 고쳐쓰기

[정답 해설]

③ ㉞ ‘국가 정책 수립과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A(국가 정책 수립)와 B(국제 협약)를 체결하기 위해’가 되는데 여기서 국제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국가 정책을 수립을 체결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로 고치면 자연스럽다.

19.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주시하는데, 이때 특정 단어에 눈동자를 멈추는 ‘고정’이 나타나며, 고정과 고정 사이에는 ‘이동’, 단어를 건너뛰릴 때는 ‘도약’이 나타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만, 이동이나 도약이 관찰될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K 연구진은 동일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읽기 능력 하위 집단(A)과 읽기 능력 평균 집단(B)의 읽기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독서 횟수는 1회로 제한하되 독서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에서 A 집단은 B 집단에 비해 약 2배 많은 수치를 보였다. 그런데 총 고정 시간을 총 고정 빈도로 나눈 평균 고정 시간은 B 집단이 A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읽기 후 독해 검사에서 B 집단은 A 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고, 독서 과정에서 눈동자가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이전으로 건너뛰는 현상은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종합하여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에 비해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이 는 결론을 내렸다.

- ① 더 많지만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평균 시간은 더 적다
- ② 더 많고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평균 시간도 더 많다
- ③ 더 적지만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평균 시간은 더 많다
- ④ 더 적고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평균 시간도 더 적다

19. 정답 1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들어갈 내용 추론하기

[정답 해설]

제시된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글을 읽을 때 생소하거나 어려운 단어에 눈동자가 멈추는 것이 고정이며, 이때 단어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 읽기 능력 하위 집단은 평균 집단에 비해 눈동자 고정의 횟수는 많지만 고정 시간은 짧았고, 읽기 능력 평균 집단은 하위 집단에 비해 고정 횟수는 적었지만 고정 시간은 길었다고 서술하였다. 결국 하위 집단은 어렵고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눈동자 고정이 자주 일어나지만 이해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지 않아 고정의 시간이 짧은 것이고, 평균 집단은 하위 집단에 비해 모르는 단어가 적으므로 고정 횟수는 적지만, 읽을 때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더 길게 하므로 고정 시간은 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20. 다음 글의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채식주의자는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 섭취 여부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뉜다. 완전 채식주의자는 이들 모두를 섭취하지 않으며, 페스코 채식주의자는 고기는 섭취하지 않지만 생선은 먹으며, 유제품과 달걀은 개인적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섭취한다. 남은 세 가지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 모두를 먹지 않되 유제품과 달걀 중 어떤 것을 먹느냐의 여부로 결정된다. 이들의 명칭은 라틴어의 ‘우유’를 의미하는 ‘락토(lacto)’와 ‘달걀’을 의미하는 ‘오보(ovo)’를 사용해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 락토오보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으나 유제품과 달걀은 먹는다. 락토 채식주의자는  (가) 먹지 않으며, 오보 채식주의자는  (나) 먹지 않는다.

- ① (가):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나):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먹지만 유제품은
- ② (가):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나):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 ③ (가):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나):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먹지만 달걀은
- ④ (가):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나):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20. 정답 4번

출제 범위: 비문학 - 들어갈 내용 추론하기

[정답 해설]

글의 마지막 부분에 “예를 들어, 락토오보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으나 유제품과 달걀은 먹는다.”라고 서술한 부분을 참고하면, 먹는 것의 이름을 붙여 채식주의자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의 락토 채식주의자는 유제품만 먹는 채식주의자이므로 고기, 생선, 달걀은 먹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고, (나)의 오보 채식주의자는 달걀만 먹고, 고기, 생선, 유제품은 먹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